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금주 미사 독서: 강후길 프란치스코, 이영주 크리스티나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다음주 미사 독서: 오재영 제노, 이혜경 소화데레사		봉헌금: \$233	매일미사: \$10
금주 미사 복사: 우명희 카타리나		감사헌금: \$100(이영숙 카타리나)	
다음주 미사 복사: 이주현 안드레아, 이지은 월프레드		-----	
금주 미사 해설: 윤보연 소화데레사		합 계 : \$343	
다음주 미사 해설: 김보미 로사			
반	주: 조은영 베다, 정연희 가브리엘라, 강동현	금주 봉헌봉사: 전은숙 글라라	
회	계: 황성필 세레자 요한 친교실 정리: 대학원구역	다음주 봉헌봉사: 성인영 마리스텔라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교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미사 전까지	
목 주 기 도		매주 미사 20분전 (오후 4시 40분부터 4시 55분까지)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친교 /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남성교우 기도모임		격주 금요일 (9 월 6 일 저녁 8:00, 사제관)	
성모회 금요 기도모임		하계 휴식기 (9 월 재시작 예정)	
예비자 교리 모임		9 월 14 일 토요일 저녁 7 시, 사제관	
성경 통독 모임		격주 금요일 (장소, 시간: 페이스북클럽 참고)	
골프 모임		매주 일요일 아침 (Tumbledown Trails, 시간:페이스북 클럽 참고)	
테니스 모임		매주 일요일 (Tennis court at Rennebohm park, 시간: 페이스북클럽 참고)	
† <구역모임 알림판>			
1 구역	매월 둘째주 토요일	대학원 구역	미정
2 구역	매월 첫째주 토요일	학부생 구역	미정
3 구역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늘의 묵상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잔치에 초대되었을 때에 뒷자리가 아니라 끝자리에 앉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끝자리’가 단순히 공간적인 뜻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앉고 싶지 않은 자리라면 거기가 바로 끝자리입니다. 이를테면 주일인데도 성당에 가기 싫다면 성당 좌석이 곧 끝자리입니다. 제삿날이지만 시댁에 가기 싫다면 시댁이 곧 끝자리입니다. 교회 활동으로 어려운 가정을 방문해야 하는데, 갈 때마다 불편하게 느껴지면 바로 그 집이 끝자리입니다. 보좌 신부 때에는 청년들과 함께하는 회식 자리가 잦았습니다. 스무 명이 넘게 모이는데, 보통 친한 이들끼리 가까이 앉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다소 소외되는 이들은 한쪽 구석으로 몰립니다. 결국 한쪽에는 인기가 좋은 이들이, 다른 쪽에는 소외되는 이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보좌 신부인 저는 어디에 앉아야 했겠습니까? 마음으로는 좀 더 매력 있는 청년들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반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들에게서 “우리 신부님은 청년들을 편애하지 않는 것 같아.” 하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가기 싫은 자리, 하기 싫은 일, 선택하고 싶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끝자리’에 앉는 것이고, 겸손을 향한 지름길입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면, 앉고 싶은 자리만 앉으려고 하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려고 하면 겸손을 배우지 못합니다. 겸손을 배우려면 ‘끝자리’에 앉는 연습부터 해야 합니다.			

주임 신부 유성모 요셉 (608) 293-1114 사목회장 이종재 프란치스코 (608) 772-5701		 매디슨한인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Madison		홈페이지 club.catholic.or.kr/thecccm Facebook 그룹 Facebook 검색에서 “매디슨 한인천주교회” 검색 이메일 kccmwi@gmail.com
연중 제 22 주일		2013년 8월 31 일		
<제 1 독서>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3,17-18.20.28-29 <제 2 독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12,18-19.22-24 ㄱ				
화답송	시편 68(67),4 와 5 ㄱㄷ,6-7 ㄱㄷ,10-11(◎ 11 ㄴㄷ 참조) ◎ 하느님, 당신은 가련한 이를 위하여 은혜로이 집을 마련하셨나이다. ○ 의인들은 기뻐하며 춤을 추리라. 하느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너희는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 주님이시다. ◎ ○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의 보호자, 하느님은 거룩한 거처에 계시네. 하느님은 외로운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고, 사로잡힌 이들을 행복으로 이끄시네. ◎ ○ 하느님, 당신은 넉넉한 비를 뿌리시어, 메말랐던 상속의 땅을 일구셨나이다. 당신 백성이 그곳에 살고 있나이다. 하느님, 당신은 가련한 이를 위하여, 은혜로이 마련하셨나이다.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4,1.7-14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가시어 음식을 잡수실 때 일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초대받은 이들이 뒷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누가 너를 혼인 잔치에 초대하거든 뒷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몰려앉게 될 것이다.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여보게, 더 앞자리로 올라앉게.’ 할 것이다. 그때에 너는 함께 앉아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초대한 이에게도 말씀하셨다. “네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 네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들도 다시 너를 초대하여 네가 보답을 받게 된다. 네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네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송] 주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크시옵니까!				
[오늘의 성가] 시작: 59 봉헌: 219 성체: 502 파견: 283				



생명의 말씀

천국의 열쇠

조선 시대의 순교자 황일광 시몬(1757~1802년)은 백정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천주교 신자가 된 후에 자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나 점잖게 대해 주니 천당은 이 세상에 하나가 있고, 후세에 하나가 있음이 분명하다.” 그는 신분의 벽이 높았던 당시, 사회에서 천민인 자신을 형제처럼 여겨주는 신자 공동체를 지상의 천국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천국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도성이며 천상 예루살렘”으로서 거기에는 “새 계약의 종개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제2독서) 하느님을 직접 뵈고 예수님과 완전한 친교를 이루면서 충만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런 천국은 죽음 다음에 가는 곳이지만, 이미 이 세상에서 교회와 함께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보이지 않게 교회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당신과의 친교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미사와 다른 성사들을 통해 필요한 은총을 선사해 주시며, 신자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임에 함께 계십니다. 교회가 예수님과의 친교 안에서 서로 형제자매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이미 이 세상에서 천국의 씨앗이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 천주교회를 황일광 순교자처럼 지상의 천국으로 느끼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처럼 보잘것없는 이들을 감싸안고 보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속의 논리에 편승하여 크고 화려하고 힘센 것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이신 예수님은 기꺼이 낮아지셨는데, 잔치 석상에서 서로 윗자리를 차지하려던 이들처럼(복음) 자리다툼을 하고, 위상 높이기엔 연연하지는 않는지요?

인류의 원조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처럼 되려는 욕심’(창세 3,5 참조) 때문에 순명하지 않아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주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앞세우는 교만은 천국 문을 닫아걸는 빗장입니다. 반면에 자신이 피조물임을 잊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는 겸손은 하느님의 큰 권능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제1독서)이고,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모두 그분의 일꾼이요 도구일 뿐입니다.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 모두 각자의 처지에 맞게 겸손하게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교회는 천국의 맛과 분위기를 낼 것입니다.

현대에는 자신을 앞세우고, 자아실현과 개인의 자유를 거의 절대시하는 풍조가 매우 강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느님의 뜻과 영광을 우선시하는 겸손은 남에게 뒤처지는 것 같고, 손해 보는 것같이 느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순교자들을 기억합시다. 그들은 보이지도 않는 하느님을 위해 재산과 명예는 물론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그들이 걸었던 길은 세속의 기준으로는 정말 바보 같은 길이었지만, 실상은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자신이 아니라 하느님을 첫자리에 모시고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겸손이 천국의 열쇠다!’ 그 열쇠를 받아 천국 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송희송 베네딕토 신부 | 서울대교구 사목국장

† 공지사항

1. 꾸르실료 교육을 받는 자매님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영숙(카타리나), 한영주(리드비나), 전은숙(글라라)

충북부(시카고) 여성 제 14 차 꾸르실료 교육이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3박 4일간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교육에 참여하는 세 분의 자매님들께서 꾸르실료 교육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고, 공동체에 더 큰 사랑을 전하는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 지난 주에 학부생이신 황지환 비오 형제님과 박인주 안드레아 형제님, 대학원생이신 이선영 마리아 자매님과 서지희 자매님 그리고 안현기 요셉 형제님 가족(안진형 그레고리오, 테레자 자매님)께서 성당에 새로 오셨습니다. 많은 환영 부탁드립니다.

3. 오늘 미사 후에 공동체 식사가 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수고해주신 2 구역분들께 감사드립니다.

4. 가을 야유회 및 추석 미사가 9월 22일 일요일 Elver Park에서 10시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11시 미사 후 공동체 식사와 야유회 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2일 야외 미사 일정으로 21일 토요일 미사는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 소식

< 성경 통독 모임 안내 >

교우 여러분, 함께 모여 주님 말씀을 들어 보아요 금요일에 격주로 모여 성경을 통독합니다.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통독 합니다. 함께 주님 말씀을 들으며 은총의 시간을 나눠 보아요. 남아 노소 누구나 환영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교우님은 연락주세요(전화 : 770 0291)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남성교우 기도모임(계속) >

공동체의 남성교우 기도모임에 참여하세요, 격주로 모여 다함께 묵주기도 바치고 묵상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신부님 또는 흥진국 클레멘스 (jkhong2350@yahoo.com) 형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독서단 모집(계속) >

독서 봉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은숙 글라라 자매님 (esjeon95@mac.com) 혹은 김보미 로사 자매님 (bomi921@gmail.com)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성가대 모집(계속) >

성가대원과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교우분들께서는 지휘자 한영주리드비나 (lidwinahan@gmail.com) 에게 문의하시거나, 미사 전후에 지하 Music Room 에 직접 들려주셔도 됩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